

2012 새해에는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노·사 평화선언 이끌어 낼 것”



지역내 일자리 확대 3월 회장 연임 도전

광주상공회의소 박흥석 회장은 3일 “상공의원이 필요 하다면 하겠다”며 오는 3월 제21대 회장 연임 도전의 뜻을 시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상의 회장실에서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일이 즐겁다. 중요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하지만 “무엇보다 회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지역 상공인들이 의견을 모아 상호 협력하고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광주상의 회장은 3월 중순께 의원선거를 거쳐 3월 말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새해 지역경제 전망에 대해 “유럽 재정 위기, 북한의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지역 상공인들의 잠재력과 지혜를 믿는다”며 “지난해 130억 달러 돌파라는 사상 최다 수출 실적을 낸 주역인 자동차·가전·광산업을 중심으로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자”고 격려했다. 그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2015하계U

지역자본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광주은행 인수 준비와 상품거래소 유치전을 통해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잠시 연기됐지만 재추진되면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돌아오고 상품거래소가 광주에 설립된다면 지역 금융산업이 발전해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과 부가가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 실물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시·도민 모두 새해에도 지역 제품 애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려키산업 대표이사,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 대표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사진=최재호기자 kchoi@kwangju.co.kr



대구가 생태를 누르고 겨울철 대표 생선으로 자리잡았다. 3일 광주신세계 이마트 수산코너에서 고객이 대구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제공>



대구, 겨울 생선 ‘올킬’

작년 11~12월 매출 생태의 5배...50% 늘어
일 명태 구입 어렵고 서해 대구 어획량 증가

대구가 생태를 제치고 겨울철 대표생선 자리에 올랐다. 3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작년 11~12월 생선 판매현황을 집계한 결과 대구 매출이 생태의 5배를 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구 매출은 생태의 45%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이마트에서 대구 매출이 생태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 해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된 생태 매출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데 비해 대구는 50% 정도 늘어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방사선 영향으로 일본산 명태 구입이 어려워진데다 서해에서 대구 어획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구 소비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10년 전부터 동해바다에서 국내산 생태가 사라진 이후 이를 대체하던 일본 홋카이도산 생태는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급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울해 서해에서는 씨알이 생태만해 식탁에 오르기 적당한 1kg안팎 크기의 대구 어획량이 20~30%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대구도 금어기에 들어가자 유통업체에서는 ‘해의 소생’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알래스카산 생태를 개척해 판매하는가 하면 러시아 오즈크 해역의 생태를 업계 처음으로 들여오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 유통업체 “1분기 경기 최악”

경기전망지수 72...환란이후 최저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은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이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편의점,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9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1·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72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지난 2009년 1분기(71) 이후 최근 3년간 최저치로, 전 분기보다 무려 39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다. RBSI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난해 4·4분기 RBSI 실적치는 81이었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와 판매수수료 인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업체별 전망을 보면 전자상거래(107)는 1·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나 백화점(53), 편의점(79), 대형할인점(99) 등 대부분 업체가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항목별로는 매출(76) 감소와 더불어 객단가(68)도 하락하는데 반해 총비용(132)은 상승해 순이익(73)이

감소하고 자금사정(77)도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여건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39.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수익성 하락(22.0%), 업체 내 경쟁심화(12.0%), 상품가격 상승(11.5%), 업체간 경쟁심화(7.9%), 자금사정 악화(3.1%) 등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국제적 경기 둔화가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과 유통업체의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은 ‘KJB혼합금리아파트론’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주택담보대출 선택의 폭을 확대키 위해 ‘KJB혼합금리아파트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대상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이며 감점가액의 최대 60%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1월 4일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4.6~최고 6.2%다. 또한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년경과 후 잔여기간 동안은 12개월 변동 잔액 COPIX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3년~15년까지며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3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돼지고기 삶으면 맛·건강 2배

식약청 “새우젓 찌떡궁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우리 국민이 자주 먹는 돼지고기에 대한 영양 성분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블로그(식약지킴이·푸드원도우로 검색)와 웹진 열린마루(http://www.kfda.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티아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쇠고기에 든 비타민B1(0.07mg/100g)보다 10배(0.4~0.9mg/100g)나 많다. 비타민B1은 탄수화물(당질)의 대사를 돕기 때문에 쌀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다. 지방이 적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등심, 삼겹살 순이다. 돼지고기는 가급적 삶거나 찌 먹는 게 건강하다.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HCAs)이 생긴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 물질을 최소화하려면 조리시 10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마늘·양파 등을 넣고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다. 육회로도 먹는 쇠고기와 달리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돼지 근육에 갈고리충이라는 기생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염되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돼지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짬뽕이 있다. 우리 조상이 선택한 새우젓이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아 차질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새우젓이 소화를 돕는다. /연합뉴스

Seoul System advertisement for administrative content management systems. Includes sections for PhotoMan 2000, MediaMan 2000, Photo CD 2000, NewsMan 2000, and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Each section describes a different system for managing photos, videos, CD/DVDs, news, and compensation documents.